

박근혜의《통일대박론》을해부함

최근 남조선에서는 해피하기 그지없는 그 무슨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돌고있다.

박근혜는 말할마다 《통일대박》을 운운하면서 《통일대비》니, 《통일준비위원회구성》이니 뭐니 하고 부산을 피우는가 하면 주변나라들과 멀리 유럽에 가서까지 《통일대박》을 광고하고있다.

박근혜의 치마바람에 휘둘러 그밀의 피뢰시정배들과 피뢰이용언론들도 입을 모아 《통일대박》을 외워대며 그 무슨 연구니 뭐니 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민심과 내외여론은 리명박폐당이 한때 《통일항아리》라는 것을 들고나와 사람들을 웃기더니 이번에는 웬 《통일대박》인가 하면서 조소를 금치 못하고있다.

통일에 대해 아무런 일가견도 없고 문외한인 박근혜인즉 리명박처럼 무엇을 하나 내들어가 하겠는데 《통일항아리》라고 하는는 멋지고 하여 《통일대박》이라는것을 궁리해낸 모양이다.

박근혜와 그 어용나팔수들이 《통일대박》에 대해 광고하는것을 보면 똑똑한 론리나 내용도 없고 그저 통일이 리득을 가져다주므로 통일준비를 다그쳐야 한다는 식의 허망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박근혜폐당의 주먹구구식순악계산법을 보면 너무도 유치하고도 황당무계하여 입이 쓰거울 정도이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상식이 하의 극히 저속하고 천박한것이어서 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피뢰폐당이 그것을 간판으로 내걸고 통일을 바라는 민심과 내외여론을 심히 우롱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반통일적, 반민족적정체를 해부하여 만천하에 고발하지 않을수 없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무엇보다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엄중히 외곡, 변질시키고 겨레의 통일념원을 모독하는 극악한 반통일론이다.

원래 《대박》이란 말은 일하기 싫어하고 공짜를 좋아하는 건달맹이들과 사기꾼들, 장사치들이 투전판에서 써온 《횡재》, 《행운》을 뜻하는 속어로서 우리 말 사전에는 애당초 없고 남조선사전에선 흥행에 성공하여 큰 수입을 얻는 일이라고 되어있다.

박근혜가 이 유치하기 그지없는 《대박》이라는 쓰레기같은 낱말을 통일이 라는 신성한 이름에 갖다붙인것자체가 우매하다고 할지, 아둔하다고 할지 하여튼 기가 막힌 일이다.

더구나 그 해피한 용어에는 돈으로 모든것을 유혹하고 돈이면 만사가 다 된다는 황금만능의 저렬하고도 추악한 속물적근성이 진하게 배여있다.

피뢰폐당은 그런 속된 론리로 저들의 불순한 《체제통일》망상에 대한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고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국통일은 외세를 몰아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며 나라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이다.

여기서 최우선적이면서 총체적인 문제는 민족분열의 원흉이고 조국통일의 최대의 장애물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이다.

나라가 통일되면 자주독립국가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며 우리 민족은 공동의 무궁번영을 누리게 될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를 위해 수많은 합리적이고 공평정당한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올해에도 우리는 력사적인 신년사를 통하여 조국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현실적이며 실천적의의가 큰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최대의 성의와 아량을 보이며,

그러나 피뢰폐당은 그에 등을 돌려대면서 분렬과 대결책동에 광분하였으며 그로 하여 내외의 비난이 높아가자 여론을 기만하기 위해 《통일대박론》을 들고나온것이다.

박근혜폐당이 《통일대박론》을 내든것은 그 무슨 《통일비용》이니 뭐니 하면서 《통일세》를 긁어모으고 《통일항아리》에 모금을 하는 광대놀음을 벌리다가 돈을 건어들이는 통일은 필요없다는 《통일무용론》이 대두되어 고립배척당한 리명박폐당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한것이기도 하다.

물론 《통일대박》이란 말은 지능계가 2MB인 리명박보다 못한 박근혜가 제 머리로 생각해낸것이 아니라 어느 한 친미피뢰보수학자가 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에서 도용한것이다.

박근혜와 심복졸개들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때 《대통령은 박근혜》라는 말의 략자와 같은 《대박》이라는 표현이 신통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선거유세에서 즐겨 써먹었으며 《정권》을 쥐게 되자 《통일대박》을 대북정책의 간판으로 내들게 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해피망측한 표현이었으면 외신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 몰라 이구동성으로 물음을 제

기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노다지》, 《행운》이라는 뜻으로 쓰면 된다고 설명하는 추태까지 부렸겠는가.

나라가 분렬되어 반세기도 훨씬 지나 근 70년이 되어오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도 가슴아프고 창피한 일인데 조국통일문제의 근본성격을 부정하고 그것을 한갓 장사치들의 총정물로, 투전판의 도박놀음으로 묘사한것은 겨레의 통일념원에 대한 악랄한 우롱이고 모욕이다.

박근혜가 우리 민족의 숙원인 성스러운 조국통일문제를 《통일대박》이라는 말로 비하하고 중상모독한것은 그가 얼마나 추악한 반역아, 폐륜아인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또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체제통일》을 추구하는 흉악한 반통일대결론이다.

박근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떠벌이면서 《체제통일》망상을 드러내놓았다.

얼마전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박근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을 제창하였으며 그에 대해 상건과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크게 떠들었다.

박근혜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것을 보아도 우리를 변화시켜 《체제통일》망상을 실현해보겠다는것이여 이른바 《드레즈덴구상》이라는것 역시 먹고 먹히우는 《도이칠란드식통일》을 모델로 하여 《체제통일》을 하겠다는것이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이처럼 《미국식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과 《도이칠란드식통일》을 전제로 한 불순한 《체제통일》망상을 《대박》이라는 보자기로 감싼것이다. 《체제통일》은 곧 《체제대결》을 의미한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고 서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체제통일을 주장하는것은 동족끼리 전연 대결하자는것이여 결국은 평화통일을 부정하는것이다.

우리는 온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련방체통일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시종일관 노력하고있다.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련방체통일밖에 없다.

우리가 체제통일을 마음먹었다면 이미 실현한지도 오랫동안 그럴 기회도 여러번 있었다.

오랜 기간 청와대안방에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살아온 박근혜가 그것을 알기나 하고 《체제통일》을 입에 올리는가 하는것이다.

박근혜가 그 무슨 《금변사래론》과 《봉괴론》의 개꿈에 떠들며 《통일대박론》을 내들고있는것은 더욱 가스로운 일이다.

박근혜는 《통일대박》을 떠들면서 《북이 어떻게 될것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모든 가능성은 남두에 두고 대비하자느것》이라고 췌쳤다.

그의 오른팔격인 피뢰정보원 원장 남재준은 한수 더 떠서 《2015년에는 대한민국체제로 통일되어있을것》이라는 나팔까지 불어댔다.

그것은 신통히 《통일은 도적처럼 온다.》고 하면서 《금변사래》개꿈에 사로잡혀 대결에 미쳐날뛰다가 온갖 오명을 다 쓰고 몰란 리명박역도를 방불케 한다.

《북금변사래론》과 《북봉괴론》은 오래전부터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부릴없이 떠들어대다가 우리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고 우리 공화국이 강위력한 핵보유국으로까지 되는 바람에 풍지박산나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것이다.

오늘 봉괴와 《금변사래》에 직면하고있는것은 남조선이다.

지금 피뢰폐당은 총체적봉괴위기에 처해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배침물사고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침몰》로 규탄하면서 《정권퇴진》을 강력히 요구해나가고있다.

온 남조선땅이 초상집이 되고 림종의 운명에 처해있는 박근혜가 허망한 《북봉괴론》개꿈을 꾸면서 그 무슨 《대박》이니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얼마나 가관인가.

더우기 민심과 민족의 저주의 대상으로 되어 제명을 다 산 극악한 살인마집단, 반역의 무리들이 통일을 《주도》하겠다는것은 가마속의 삶은 소대가리로 양철냄비상 회비국이다.

박근혜폐당은 통일을 입에 올릴 체면도 자작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또한 동족의 머리에 핵제앙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론이다.

박근혜폐당은 《통일대박론》의 막뒤에서 대결과 전쟁소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박근혜는 《한반도통일시대준비》니, 《튼튼한 안보태세》니, 《한미동맹강화》니 뭐니 하면서 정초부터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며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에 미쳐들어갔다.

피뢰호전광들은 2월말부터 수개월동

안이나 미국과 함께 《키 리졸브》니, 《독수리》니, 《맥스 쉐더》니 하는 북침전쟁연습을 록지와 바다, 공중에서 력대 최대규모로 벌려놓았는가 하면 도발은 저들이 저지르면서 그에 대응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에 대해 무력적이고 《도발》이니, 《위협》이니 걸고들며 《보복》과 《응징》을 운운하면서 정세를 전쟁절정으로 몰아갔다.

박근혜는 특히 온 남조선땅이 력적침몰사고로 아수라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피수 오바마를 끌어들이어 반공화국핵소동을 벌려놓다못해 《전시작전권》전환재언기를 애걸하고 위험천만한 북침전쟁각본인 《국지적발공동대비계획》과 《맞춤형억제전략》실현을 위한 공모결락을 일출 강화하였다.

박근혜가 집권한 후 남조선에 더 많은 미국핵무기들이 쓸어들어와 북침핵전쟁책동이 한층 위험하게 벌어졌으며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도막광판이 최절정에 달하였다.

박근혜는 오바마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남포기 무참할 정도로 동족을 악랄하게 쏘아대고있다.

피뢰폐당은 우리가 미싸일시험 한번해도 숨이 넘어갈듯 소란을 피우면서 미국에 대고 북을 어찌달라고 애걸복걸하는가 하던 우리의 4차 핵시험에고에 대해서는 당장 지구가 꺼져나가는것처럼 비명을 울리면서 상건의 품에 더 깊숙이 기어들며 《강력한 응징》과 《보다 높은 강도의 제재》를 췌쳤다.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해 《실현불가능》이니 뭐니 하며 가장 피해를 돌우어 시비중상한것도 박근혜이며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가장 악랄하게 반대해나선것도 피뢰폐당이며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고아대며 인권쓰레기들을 《증인》으로 섬겨대고 유엔 《북인권사무소》까지 끌어들이려 하면서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도막책동의 열격대, 하수인으로 가장 악질적으로 발뚎고 나서고있는것도 바로 박근혜역적폐당이다.

이 모든것은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대박》이란 뒤집어놓은 《전쟁대박》이며 미국의 힘을 빌어 기어이 북침전쟁을 일으키려는 흉심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대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이 가져올 결과는 필연고 전쟁참화밖에 없다.

전쟁으로 남조선이 폐허로 되고 기업이 재가루로 되어 사람까지 다 죽은 다음 거기에 무슨 《대박》이 있고 《횡재》가 있을수 있었는가.

이러한 비참한 전쟁도 박근혜에게는

《대박》이 되는가 하는것이다. 박근혜는 저들이 제창하는 《통일대박론》이 내외의 비난조소와 배격을 받자 미국상건의 인정이라도 받아보려고 오바마의 서울행각때 별의별 갖은 추태를 다 부리었다.

그리고는 상건이 한마디 해주는데 너무 감지덕지하여 미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그 얼음장같은 상통에 어물리지 않게 격려운 수다를 떨었다.

실로 박근혜와 같은 추악한 매국노, 친미악녀는 이 세상에 없다.

제반 사실은 박근혜가 떠드는 《통일대박론》이 저들의 불순한 정체를 가리우고 여론을 기만하여 반통일대결광판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기 위한 극악무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변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준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나라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흉악무도한 《체제대결론》, 《체제통일론》이며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론》, 《핵제양론》이다.

집권하여 1년이 훨씬 넘도록 아무 실적도 없이 궁지에 몰린 박근혜가 똥판지같이 《통일대박론》이란것을 내걸고 그 무슨 《효과》를 거두어 몸값을 올려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얻을것은 온 겨레를 비롯한 내외의 더 큰 규탄과 망신밖에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박근혜의 반민민적, 반민족적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으며 《세월》호가 침몰하듯 박근혜 《정권》의 침몰과 박근혜의 심판은 이제 시간문제이다.

박근혜는 통일문제를 가지고 민족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리명박역도가 《통일항아리》으 뭐요 하며 신성한 통일문제를 모독하다가 민족의 규탄을 받고 수치스러운 운명에 처하였듯이 박근혜 역시 《통일대박》이요 뭐요 하는는 도박놀음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결국 그보다 더 처참한 신세를 면할수 없다.

박근혜는 도이칠란드의 《라인강반의 기적》을 본바 《한강반의 기적》이요 뭐요 하면서 반통일대결과 북침책동에 미쳐날뛰다가 비명횡사한 예비박정희의 비극적인 종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범피적인 《통일대박론》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으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으로 반드시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 평원 (《로동신문》에서 전재)



《전시작전통제권》전환언기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 왜 또 다시 연기되었는가

외세와 매국노가 어울리는 곳에서는 언제나 민족반역의 흥정이 있기 마련이다.

박근혜가 서울을 행각한 오바마에게 애걸하여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재언기한 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원래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는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었다.

그런데 매국역적 리명박이 《미국과의 동맹의 근간이 흔들린다.》느니, 《안보위협이 증대》된다니 하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상건에게 끈덕지게 애걸하여 그것을 2015년까지로 연기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정상추진》을 《공약》으로 들고나왔고 그것을 자기의 《외교안보정책의 핵심과제》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그것은 외세의 지배를 원치 않는 남조선인민들을 기만우롱하고 권력을 차지하기는 박근혜의 파렴치한 위장술책이었다.

박근혜는 권력을 쥐자마자 앞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 《계획대로 추

진》될것이라고 떠들고 돌아앉아서선 자신은 물론 군부인물들을 내세워 그 시기를 늦추어보려고 미국상건의 옷자락에 더 바짝 매달려왔다.

이번에 오바마의 서울행각을 계기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또다시 연기된것은 꼬불מן 한 민족적자존심도 없는 박근혜의 친미사대매국행위의 산물이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또다시 연기한데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있지도 않고 그 누구의 《위협》을 걸고 시간을 얻어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더욱 완비하는 동시에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끝으로 배진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것이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에 대해 《북의 핵과 미싸일을 조기에 식별, 탐지, 타격하는 대응전략체계를 갖춘 후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형란도미싸일요격체계가 구축되는 2020년에 가서야 가능하다.》고 떠들어댄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실지로 지금 남조선당국

은 군부호전세력을 내세워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따른 작전능력제고와 그 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떠들며 선제타격체제인 《킬 체인》의 구축과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요격미싸일 《메트리오트-3》의 도입 등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번에 남조선호전광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사출연습을 전례없이 광란적으로 벌려놓는 속에 최대규모의 련합상륙훈련과 련합공중훈련을 2중, 3중으로 감행한것도 바로 그에 따른것이다.

한편 미국은 친미사대매국세력이 애걸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를 인질로 삼아 남조선을 저들의 미싸일방어체계에 끌어들이고 남조선, 미국, 일본의 3각군사협력을 강화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동족을 해치기 위해 외세에 자주권을 무한정 내맡기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수기로 생각지 않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추악한 사대매국노집단이다.

리 어금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의 암초 (4)

6. 15시대를 가로막아보려고

6. 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보수당국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혔다.

예로부터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달가와하지 않은 미국은 리명박보수폐당을 동족대결과 전쟁도발광판에로 더욱 사추했다.

미국이 6. 15공동선언발표 후 종개 발전하는 북남관계에 제동을 걸어보려고 반공화국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그 무슨 《병행추진》이니, 《속도조절》이니 하고 떠들어대고 북남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퍼주기》니, 《투명성》이니 하며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기 위해 일

마나 퍼논이 되어 날뛰어왔는가 하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전부터 북남관계에 췌기를 치고 동족사이에 대결을 고취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절경에로 몰아가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해온 미국이다.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에로 몰아가기 위한 미국의 책동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가 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리명박집권후 반공화국《제제》소동에 더욱 광분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위성발사는 공화국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이며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모든 나라의 권리로 규정한 우주조약에도 부합되는 주권행사이다. 또 공화국의 핵시험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조치이다.

그러나 2006년 10월 14일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를 문제시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1718호를 조작했던 미국은 2009년 4월에는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자위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공화국이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자 또다시 그것

을 문제시하는 결의 1874호를 만들어냈다. 한편으로는 북남대결에 환장이 된 리명박보수폐당을 《제제》소동의 앞장에서 날뛰도록 적극 부추겼다.

또한 미국은 2012년 4월 16일에도 공화국의 위성발사의 평화적성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사코 《장거리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이기 위하여 온갖 비렬한 술책을 다하던 끝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의장성명》이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해냈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조작한 이리

한 반공화국 《결의》, 《성명》들은 모두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을 부추기고 전쟁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책동의 산물이다.

2010년 3월의 《천안》호 사건과 같은 해 11월의 연평도포격전도 미국의 음흉한 기도와 배후조종에 의해 일어난것이다.

남조선보수폐당과 함께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을 조작한 미국은 《천안》호

가 침몰되기 바쁘게 공화국의 군대가 판어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가 하면 남조선당국의 조사과정에 대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느니, 《북어뢰공격》발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느니 하면서 《대북침대》와 강경대결에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남조선당국이 《천안》호 침몰사건의 조사과정을 발표하면 그를 비호하는 미국의 성명이 뒤따랐으며 리명박의 《대국민담화》가 발표

되면 그를 두둔하는 미국의 지지립장이 공개되었다. 미국은 위성론에서 국무성과 국방성, 중앙정보국의 악명 높은 모략사환군들로 공중이 판을 벌려놓고 필요한 정책공조와 협력유지립장을 꺼리

낌없이 공개한것으로도 부족하여 허울만 남아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사건현지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파견하게 하는 광대구까지 놀아대게 하였다.

북과 남사이에 불과 불이 오고간 연평도포격사건 역시 미국이 북남관계를 전쟁절경에로 몰아가기 위해 남조선호전광들과 사전에 면밀하게 꾸미고 의도적으로 감행한 계획적인 군사적도발행위라는것도 이예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남조선보수폐당이 연평도 포격사건의 직접적인 도발자라면 그리하여 남조선호전광들을 군사적도발에로 추동한 조종자,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6. 15공동선언리행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